

GIST 강철·이나영, '과학·정보통신의 날' 부총리 표창

강철 수석연구원, 우주·국방 차세대 센싱 경쟁력 확보

이나영 선임행정원, 연구 현장과 대중 잇는 가교 역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제59회 과학의 날(4월21일)과 제71회 정보통신의 날(4월22일)을 맞아 강철 수석연구원과 이나영 선임행정원 이 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 부장을 맡고 있는 강철 수석연구원은 테라헤르츠

(THz) 광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테라헤르츠는 전파의 투과성과 빛의 직진성을 동시에 지닌 이른바 '꿈의 주파수' 영역으로, 차세대 통신과 첨단 센싱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 수석연구원은 2006년부터 펄스 레이저 기반의 고효율 테라헤르츠 광원 기술 개발을 선도해



강철 수석연구원



이나영 선임행정원

왔으며, SCI급 국제학술지에 7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특히 GIST의 150TW급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활용해 테라헤르츠 신호의 세기와 주파수

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기술은 향후 초고속 통신과 비파괴 검사, 우주·국방 분야 첨단 센싱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영 선임행정원은 과학기술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학술정보 및 교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년간 연구 성과를 뉴스 콘텐츠로 재구성해 대외 확산을 이끌어 왔다.

특히 연구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주요 연구 성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며 GIST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했으며, 2023년 개교 30주년을 계기로 '열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강철 수석연구원은 "테라헤르츠 광학 기술은 미래 산업 전반에 활용될 핵심 원천 기술"이라며 "초강력 레이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영 선임행정원은 "연구 현장의 성과를 대중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과학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GIST의 연구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광주문학관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내달부터 7개월간 상주하며 창작·문학 프로그램 운영

광주문학관은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사진)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상주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다라제이'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인터넷 기록보관(아카이브), 영상, 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송 작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광주문학관에 상



주하며 집필 활동과 함께 시민 참여형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광주문학관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며,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지원과장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화순전남대병원에 후원금 전달

취약계층 환자 치료비 지원 2023년부터 생명 나눔 실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병원을 찾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부담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금은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화순전남대병원 원목실과 연계, 협력해 총 1173만원 규모의 후원을 이어오며 외국인 환자 치료비 지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소아암 환자 지원 등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과테말라 희소병 환자 돌세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정 기탁과 소아암 환자를 위한 장학금과 치료비를 지원 중이다. 병원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캠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최근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인도 전개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정석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사는 "어려운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안식 화순전남대병원 병원장은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후원금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소중히 사용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설립된 연합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연합회'가 아닌 '기독교교단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는 교단 연합기구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대병원, 고려인광주진료소서 현장 진료

2년 연속...정신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 참여

전남대학교병원 봉사단 '동행'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2년 연속 현장 진료를 나섰다.

2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봉사단 동행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광주진료소를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의료봉사는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정신전남대병원장(신경외과 교수)이 직접 진료 현장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병원장은 신경외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환자들을 세심히 살펴며 직접 인사를 펼쳤으며, 김광석 교수(성형외과)·윤현주 교수(순환기내과)·김유일 교수(호흡기내과)·김태영 교수(산부인



과) 등 각 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통역 자원봉사자와 보건 의료계 학생 20여명도 참여해 원활한 진료를 지원했다. 봉사단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 가교 역할을 했으며, 학생들은 진료 보조 및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함평군, 농지행정 홍보협의회 출범

농관원·농어촌공사·농업인 편의 확대

함평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함께 농지행정 제도 홍보와 협업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대회의실에서 '농지업무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농지 임대수탁,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공익지불금 신청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제도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행정 정보와 홍보 기능을 연계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겠다는 복안이다.

3개 기관은 협의체의 첫 성과로 농업인

이 알아야 할 핵심 제도와 사업을 정리한 홍보물 '한눈에 보는 함평 농지업무 길라잡이'를 공동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농어촌공사, 농관원에 배포했다.

해당 홍보물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업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됐던 각종 제도와 사업,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농지 관련 제도와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농업 발전, 농업인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대회의실에서 '농지업무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게시판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 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비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 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 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람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ონსე (음력 3월 7일)

48년생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않 해결 될 것
60년생 주변사람과 잘 지내도록 하라
72년생 부도 수표를 주의하라
84년생 연속 반항을 보이면서 일취월장 한다
96년생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51년생 약간 활동해도 편안한 결과를 낳는다
63년생 예상치 못한 문서가 들어 올 것이다
75년생 거래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라
87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99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라

54년생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실행하라
66년생 귀하의 것을 잘 삼피고 돌보라
78년생 주변의 시선에 위대하지 말라
90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라

57년생 사업은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한다
69년생 시기가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81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 하자
93년생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마라

49년생 교통사고 주의하라 특히 하얀색 차량
61년생 하나를 구하려는데 돌을 얻으니 기쁘다
73년생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라
85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
97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하겠다

52년생 금전 운동이 막히는 날
64년생 실수를 반복 할 수 있으니 신중하라
76년생 부동산 거래는 절대 안 되니 단념하라
88년생 큰 고난 끝에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55년생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헤아려라
67년생 중일 동분서주할 뿐 실익이 없다
79년생 아이템은 좋지만 헛수고에 그친다
91년생 욕심 부린 만큼 손해다

58년생 손소독기에 휘말려들 필요 없다
70년생 평소대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82년생 뒷사람과 말다툼을 주의하라
94년생 힘든 날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오늘은 조조호 보내는 것이 이득이다
62년생 이제야 귀하의 진심을 알아주는데
74년생 귀하의 계를 알아 왔다
86년생 우선은 할수 없으니 저 주라
98년생 명예훼손을 당할 운이라

53년생 현재는 뽕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65년생 문서의 운 있으니 농치지 않도록 하자
77년생 라이벌이 있더라도 경쟁에 이긴다
89년생 실패 해도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56년생 자녀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68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조심시킬 것
80년생 시댁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된다
92년생 연인이 뛰어나 주변사람이 많다

59년생 풍성한 수확 오고 도움 있을 것이다
71년생 기회가 쏟아져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83년생 시기 당할 우려가 있으니 거래 주의
95년생 힘든 일이 생기도록 의지할 곳이 없다